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2월 1일 금요일 (음 12월 27일) 제222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세배 이렇게 하는 건가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둔 지난 31일 전주시 이계순 동화속 동화세상 어린이집에서 곱게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세배하는 방법을 배우며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있다.

이원택 신임 정무부지사 내정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함께 민선7기 도정을 이끌 차기 신임 정무부지사로 이원택(50) 대령 비서실 행정관이 내정됐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31일 "민선7기 전북의 미래 발전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갈 파트너로 이 행정관을 정무부지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정무부지사 자리는 최정호 전 정무부지사가 지난해 12월 퇴임하면서 현재 공석인 상태다.

송 지사는 그동안 후임 정무부지사를 다각적으로 물색해왔으며 최근 이 행정관을 유력하게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새만금 국제공항에 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등 전북도정 안팎으로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진성 기자

'시민행복 지속가능' 전주 만든다

전주시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과 전주다움을 지키는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 전주형 구도심 도시재생을 핵심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국제 경쟁 속에서 지속발전이 가능한 전주, 시민행복이 지속가능한 전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주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발표하며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도시 성장의 척도는 외연적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성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6면) 먼저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과 권한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세수가 늘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에 용이해진다. 또,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지립도시 전주가 추진해온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특례시 지정·탄소산업 등 시, 발전 전략·정책 발표 ICT융복합 활성화도 추진

앞서, 김승수 시장과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노력은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서도 50만이하의 일반시와 똑같은 대접을 받아왔던 전주시를 비롯한 청주시, 수원시, 성남시, 창원시 등 50만이상 대도시협의회와 함께 추진됐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을 지정 기준으로 삼아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만이 지정 될 것으로 보여, 전주시 특례시지정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의 기준을 단순히 인수로 특정하는 것은 도시의 다양성을 간과한 것이다"는 논리로 정부의 방침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

업은 1000만 이상 관광객을 불러 모은 한옥마을과 전주형 도시재생을 꼽을 수 있다.

선미촌 내 폐 공가와 섬매매업소를 인권·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과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 방치된 폐공장을 문화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 도로 한가운대를 명품 광장으로 조성한 첫마중길, 예술인이 모여 마을을 이룬 서화동 예술마을은 전주를 세계 속에 알렸다.

아울러, 시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청년을 위한 사업을 통해 탄탄한 전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야호프로젝트의 숲 놀이터 16개소를 조성하고, 생태 놀이터 2개소와 학교 놀이터 6개소를 개장했으며 올해는 4개소를 더 추가 한다.

특히 덕진공원에 아동 친화 공간 조성, 공원 및 하천둔치에 어린이물놀이장 6개소 준비, 도심 속 물놀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용역실시 등 산과 물 어디서든 어린이가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전주는 탄소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상용화를 주도할 연구개발특구, 탄소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인 탄소소재법 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는 전국의 탄소 관련 114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밝힌 상태로, 시는 2020년 까지 총 168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또 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3D프린팅과 사물인터넷(IoT), VR·AR(가상증강현실)로 대표되는 ICT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 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독립(자립)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는 전주다울 때,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전주만의 정체성을 찾는데 집중할 결과, 이제 전주는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문화도시, 대한민국의 도시재생과 혁신정책을 선도하는 리더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이제 전주가 시작하면 반드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따라하게 하는 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유명 식품기업 4개사 식품클러스터 동시 투자

전북도, 다고내·푸른들·한빛식품·백제동성 등과 협약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난 31일 익산시청 홍보관에서 식품기업 4개사 대표와 조호일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장, 정현을 익산시장,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여한 기업은 차진용 소스 선도기업인 (주)다고내(김강용 대표)와 육가공업체인 푸른들(주)임인규 대표, 유기능 쌀 가공품 생산예정인 (주)한빛식품(정경숙 대표), 전통방식 흑삼 제조기업인 (유)백제동성(전순이 대표)이다. 이들 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

주 후 기업지원시설(3대 R&D센터, 파일럿플랜트, 소스산업화센터 등) 및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수출 확대 등)을 지원받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조호일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투자협약에 참여한 전도유망한 기업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더 큰 식품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2019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 하고, 아낌없이 지원하여 식품산업의 메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설 연휴 관계로 2월 7일 신문 발행합니다.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회

정읍시의회 Jeongeup-si Council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 2월 9일 **저효 방문의 해**